

대학졸업자의 미취업 지속기간과 미취업 탈출 결정요인

임정연¹⁾ · 이영민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활용하여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기간과 미취업 탈출 요인을 확인하는데 있다. 분석을 위해 중, 고등학교 3학년 패널 8차~11차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자는 개인 및 학교특성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였다. 여성 대졸자는 학점에, 남성 대졸자는 직접적인 구직행동에 적극적이었으며, 대학유형과 전공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대졸자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취업 탈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었다. 셋째, 청년층의 자기관리역량인 자존감은 미취업 탈출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은 미취업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단순히 양적으로만 다양한 취업준비행동은 오히려 미취업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청년 노동시장, 미취업기간, 생존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 서론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이들의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2015)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정부에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비하다(김강호, 2013).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단순히 경기불황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고학력화에 따른 대졸자의 공급량과 노동시장 인력수요의 불일치, ‘괜찮은 일자리’만을 선호하는 선별적 취업활동 및 학력과잉으로 인한 대졸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등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잡하여 얽혀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속된 청년층의 취업난은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니트족(NEET)을 증가시키거나 휴학이나 졸업유예 등으로 노동시장 입직시기를 늦추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천영민, 2012).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기간은 평균 11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통계청, 2015), 상용

1) 숙명여자대학교 인력개발 정책학 박사수료, jungyon82@naver.com

2) 숙명여자대학교 부교수, ymlee@sookmyung.ac.kr

직으로 취업하는 비율 등 고용의 질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김안국, 2003; 이병희, 2003; 남재량 외, 2011). 즉, 청년층은 보다 나은 직장으로서의 진입을 위해 졸업을 미루고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담보하지는 못하는 듯 하다.

오히려, 사회에 진입하여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적게 낳는 만혼현상과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향후 전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 시킨다(천영민, 2012).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칠포세대”, 대학졸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얽혀산다는 “캥거루족”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낼 만큼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청년고용의 문제는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강호, 2013).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취업 사교육과 취업준비행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혹은 특정시점의 취업을 기준으로 임금과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 성과를 다루기도 했다. 최근 들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춰지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활용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결과는 조금씩 상이하다(천영민, 2012). 특히, 대부분 2000년 중반 이전에 졸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에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년 미취업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및 미취업 지속기간에 대한 현황과 미취업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취업준비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대졸자의 특성에 따른 미취업 지속기간은 어떠한가? 셋째,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청년층의 미취업 탈출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서 벗어나 경제적 독립과 경력 개발을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변금선, 2015). 청년층의 미취업 탈출과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노동패널, 청년패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교육고용패널 등 청년층의 교육과 노동시장을 다루고 있는 패널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천영민, 2012). 관련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주엽과 홍성연(2002)은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2000년)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 기준 15~29세 청년층으로 이

들의 졸업 후 미취업기간은 평균 15.5개월이었다. 연구결과, 미취업기간이 장기화할수록 미취업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점점 낮아졌고, 여성이 남성보다 미취업 탈출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1997년 경제위기 이전의 졸업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에 비해 짧아 경제위기가 청년층의 첫 일자리 취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류장수(2003)는 2001년 청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평균 9.7개월이었으며, 수도권대 졸업생은 7.9개월, 지방대생 졸업생은 10.5개월이 소요되고 있었다. 반면, 여성, 4년제 대졸자는 남성과 전문대 졸업생에 비해 탈출확률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탈출확률이 높았다.

이병희 외(2005)는 200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4년제 대졸자의 첫 일자리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 6.9개월이었으며, 의약, 예체능, 인문, 공학, 자연계열 전공 순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미취업 탈출 가능성이 높고, 재학 중 전일제 취업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고 있었다.

김미란(2005)은 2001년 정규 대학 및 직업학교 졸업자를 고용보험 DB와 결합하여 청년층의 첫 직장 이행기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평균 첫 직장 이행기간은 13개월이었으며, 4년제 대졸자는 13.63개월, 전문대 12.07개월, 직업전문학교 14.89개월, 상의훈련원 12.34개월, 기능대 졸업자는 12.25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의약계열, 수능성적이 높은 집단, 남성, 졸업나이가 적고, 4년제 대졸자의 실업 탈출확률이 높았다.

박성재와 반정호(2006)는 2002년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과 미취업 탈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대와 4년제 대졸자의 미취업탈출 요인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재학 중 일 경험과 현장실습은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지만, 학점, 영어점수, 면접횟수는 오히려 이행기간을 장기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경과 이기영(2008)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활용하여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조사당시 학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졸업 7개월이전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 직장으로서의 평균 이행기간은 11.2개월이었으며, 대학 등급, 자격증, 학점, 전공, 어학연수, 직업훈련 등 구직과정에 관한 변수들이 첫 직장으로서의 탈출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우해봉, 윤인진(2008)은 2001년 청년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1998년 이전 대졸자와 이후 대졸자의 첫 일자리 획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표분석을 통해 집중경향 측정치로서 사건발생 기간까지의 중앙값(median lifetime)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대졸자의 50%가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6.6개월이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고, 파트타임 경험과 자격이 있는 경우 미취업 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천수(2009)는 2006년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 2월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해외연수 경험을 중심으로 해외연수가 첫 직장으로서의 취

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미취업 탈출 소요기간은 평균 5.1개월이었으며, 해외연수 미경험자는 5.3개월, 경험자는 4.2개월로 어학연수자의 구직기간이 미경험자에 비하여 짧았다.

성지미와 안주엽(2012)은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2009 GOMS1)에서 2009년 대졸자 중 만 30세 이상이거나 졸업 시점 12개월 이전 취업자는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를 대상자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평균 8개월이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탈출이 어렵고, 대학유형별로 교육대, 전문대, 일반대 순으로 취업 이행기간이 길어졌다.

천영민(2012)은 2007, 2008GOMS 데이터를 통합하여 2007년 대졸자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졸업 후 44개월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졸자의 첫 직장 이행기간은 평균 5.49개월이었으며, 전문대 대졸자보다 4년제, 남성보다 여성의 이행기간이 길었다. 또한, 인문계열에 비해 의약계열이거나 예체능계열일수록, 대학취업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탈출확률이 높았으며, 서울권에 비해 전라권 소재 대학 출신일수록, 취업관련과목 수강경험이 없고,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고, 어학연수 경험이 없고, 졸업전후 구직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있는 그룹에 비해 이행기간이 길어졌다.

변금선(2015)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의 고등학교 5학년 코호트를 활용하여 2005년 2월 대졸자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졸자의 첫 직장 이행기간은 평균 6.81개월로, 소득1분위에 비해 소득4분위와 5분위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어 소득하위계층에 속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의 중학교 3학년 패널과 고등학교(일반계 및 전문계) 3학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전국의 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서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 8차년도(2011년)부터 11차(2014년)까지 조사가 완료된 표본이다. 8차~11차 자료는 2015년 현재 25세와 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대학생생활과 취업준비, 노동시장 이행의 경험을 가장 최근데이터이다.

중학교3학년 코호트의 경우, 11차 년도인 현재 나이가 25세 내외로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이나 휴학을 경험하지 않은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시작한 시점이고, 고등학교3학년 코호트는 군대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경험한 학생들의 졸업과 취업 시기를 포함한다.

〈표 1〉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년도별 코호트 대상의 나이와 학년 구분

구분	패널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조사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3 코호트	나이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년 (4년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전문)	3	1	2	3	1	2	3		4		
		3	1	2	3	1	2	취업				
고3 코호트	나이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학년 (4년제)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전문)	3	대1	대2	취업							
		3	대1	대2	취업							

본 연구의 대상은 2012년 2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다. 졸업생 중 당장 취업준비가 어려운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 전, 창업한 자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후, 전체 426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이 227명(53.3%), 여성은 199명(46.7%)이었으며, 코호트는 중학교 3학년 코호트가 248명(58.2%), 전문계고 3학년 코호트 45명(10.6%), 일반계고 3학년 코호트는 133명(31.2%)이었다. 대학 유형별로 전문대 졸업생이 106명(24.9%), 4년제 졸업생은 320명(75.1%)으로 4년제 졸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전공은 공학계열이 135명(31.7%), 사회계열 114명(26.8%), 예체능계열 46명(10.8%), 자연계열 41명(9.6%) 순이었다. 대학소재지는 경상권이 140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 94명(22.1%), 경기인천강원 81명(19.0%), 호남권 57명(13.4%), 서울 54명(12.7%) 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빈도	%
성별	남자	227	53.3
	여자	199	46.7
코호트	중학교 3학년 코호트	248	58.2
	전문계고 3학년 코호트	45	10.6
	일반계고 3학년 코호트	133	31.2
대학유형	전문대	106	24.9
	4년제	320	75.1
전공계열	인문계열	25	5.9
	사회계열	114	26.8
	교육계열	33	7.7
	공학계열	135	31.7
	자연계열	41	9.6
	의약계열	32	7.5
	예체능계열	46	10.8

<표 계속>

		빈도	%
대학소재지	서울	54	12.7
	경기인천강원	81	19.0
	경상권	140	32.9
	호남권	57	13.4
	충청권	94	22.1
합계		426	100.0

2. 분석자료 및 변수 설명

본 연구의 사용변수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종속변수는 2개로 취업여부와 미취업 탈출기간이다. 취업여부는 일시적, 한시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제외한 온전한 일자리 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의 유형인 “상용직”과 “정규직”에 모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취업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미취업 탈출기간은 대졸자가 대학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첫 직장에 취업한 시점에서 졸업시점인 2015년 2월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졸업 전 취업한 경우 미취업 탈출 소요기간을 “0개월”로 계산하였다. 대졸자의 취업여부만 확인할 경우,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한시적 일자리를 제외하고 상용직과 정규직에 모두 그렇다고 체크한 경우의 일자리를 첫 번째 일자리로 계산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 및 대학특성, 자기관리역량 취업준비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특성으로 성별과 코호트를 살펴보았다. 코호트를 통해 대졸자의 연령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학교 3학년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연령이 3세정도 많다. 대학특성은 대학유형(전문대졸, 4년대 졸)과 전공계열, 대학 소재지로 구성하였다.

자기관리역량은 자존감변수를 활용하였다. 자존감은 자기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은 개인의 목표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행동은 대학 졸업 전의 취업준비행동을 살펴보았다. 변수는 지도교수와 의 면담횟수, 재학 중 현장실습 여부, 학점, 구직활동 경험 및 구직활동의 적극성이다. 구직활동의 적극성은 구직활동의 세부항목을 질문하는 직업훈련 참여여부에서부터 취업알선기관 상담경험 까지 총 15개의 취업준비행동의 참여 횟수를 더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표 3〉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설문지코드	
종속 변수	취업여부 ³⁾	미취업=0, 취업=1	F8Y02002	
	미취업 탈출기간 (개월)	첫 직장근무시작시기-2012년 2월	F8Y05007, F9Y05007 F10Y04001	
독립 변수	개인 및 대학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GENDER
		코호트	중학교3=1, 전문계고 3=2, 인문계고3(더미)	BYSCCLASS
		대학유형	전문대학=0, 4년대학=1	F7Y01002
		전공계열	인문=1, 사회=2, 교육=3, 공학=4, 자연=5, 의약=6, 예체능(더미)	F7Y01004C
		대학소재지	서울권=1, 경기권=2, 경상권=3, 전라권=4, 충청권(더미)	F7Y01007
	자기관리역량		자존감(5점 척도)	F7Y14010
	취업준비 행동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	지도교수와의 면담 횟수-학업/진로	F8Y02004
		재학중 현장실습여부	없음=0, 있음=1	F8Y02059
		학점	최근학기 성적, 백점으로 환산	F8Y02084/F8Y02085*100
		구직활동경험	없음=0, 있음=1	F8Y03001
구직활동의 적극성 ⁴⁾		총 15점	F8Y03007~F8Y03037	

3. 분석방법

대졸자의 졸업 후 미취업 탈출기간 및 미취업 탈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SPSS의 차이 분석 및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생존분석은 케플란-마이어 분석(Kaplan-Meier analysis)과 콕스의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생존분석의 특징은 절단된 사례를 고려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가 2012년 2월 졸업 전이나 졸업시점에 취업한 경우는 “0개월”로 코딩하여 좌측절단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졸업 이후부터 마지막 관측시점인 11차년도 조사시점인 2014년 12월까지 총 34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우측절단 된다.

케플란-마이어 분석은 1958년 Kaplan과 Meier에 의해 고안된 생존분석 방법의 하나로,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률과 생존기간을 계산하거나, 특정 집단간, 사례발생 시점에서의 생존률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은 절단이 발생한 사례의 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채구묵, 2013).

3) 취업여부는 대졸자의 현재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여 상용직과 정규직에 모두 그렇다고 체크한 경우의 일자리를 첫 번째 일자리로 산정함

4) 직업훈련, 자격증취득여부, 취업정보검색, 취업부탁, 학교지원서비스이용, 방문부탁, 면접훈련, 적성흥미검사 경험, 취업박람회 경험, 구직정보 인터넷 업로드경험, 취업스터디 경험, 워크넷 검색경험, 고용안정센터 상담 경험, 사설취업사이트 정보검색 경험,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경험 여부의 총합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래의 <표 4>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남자는 53.3%(227명), 여자는 46.7%(199명)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는데, 코호트에 따라 남자는 고3 코호트에서 88.2%, 여성은 중3 코호트에서 71.8%를 보여 코호트별로 성별 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성의 경우, 군대 등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3년 정도 졸업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대학유형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가 24.9%(106명), 4년제 대학 졸업자가 75.1%(320명)로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는 중3코호트에서의 비율(29.8%)이 고3코호트에서의 비율(18.0%)보다 높았다.

전공계열은 공학, 사회, 예체능, 자연, 교육계열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회계열과 교육계열 전공은 중3 코호트에서의 비율이 고3 코호트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반면, 공학계열 비율은 고3코호트에서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소재지는 중3코호트에서는 호남권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고3코호트는 경기인천강원지역 소재지 대학 졸업생의 비중은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중3코호트		고3코호트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0	28.2	157	88.2	227	53.3	
	여자	178	71.8	21	11.8	199	46.7	
	전체	248	100.0	178	100.0	426	100.0	
대학유형	전문대	74	29.8	32	18.0	106	24.9	
	4년제	174	70.2	146	82.0	320	75.1	
	전체	248	100.0	178	100.0	426	100.0	
전공계열	인문	17	6.9	8	4.5	25	5.9	
	사회	75	30.2	39	21.9	114	26.8	
	교육	29	11.7	4	2.2	33	7.7	
	공학	56	22.6	79	44.4	135	31.7	
	자연	24	9.7	17	9.6	41	9.6	
	의약	21	8.5	11	6.2	32	7.5	
	예체능	26	10.5	20	11.2	46	10.8	
	전체	248	100.0	178	100.0	426	100.0	
	대학소재지	서울	32	12.9	22	12.4	54	12.7
		경기인천강원	37	14.9	44	24.7	81	19.0
경상권		80	32.3	60	33.7	140	32.9	
호남권		44	17.7	13	7.3	57	13.4	
충청권		55	22.2	39	21.9	94	22.1	
전체		248	100.0	178	100.0	426	100.0	

개인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자존감 차이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은 3.98점, 여성은 3.88점, 코호트에 따라서는 일반계고 3학년이 4.02점, 중학교 3학년이 3.90점, 전문계고 3학년은 3.82점이었다. 전공별로는 예체능, 공학, 자연, 사회, 교육, 의약, 인문계열 순이었으며, 대학 소재지는 서울, 충청, 경상, 호남, 경기인천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5〉 개인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자존감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227	3.98	0.71	1.463
	여자	199	3.88	0.67	
코호트	중학교 3학년 코호트	248	3.90	0.67	1.913
	전문계고 3학년 코호트	45	3.82	0.68	
	일반계고 3학년 코호트	133	4.02	0.73	
중고등 코호트	중학교 3학년 코호트	248	3.90	0.67	.196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178	3.97	0.72	
전공	인문	25	3.60	0.58	1.896
	사회	114	3.93	0.69	
	교육	33	3.85	0.62	
	공학	135	4.01	0.71	
	자연	41	3.98	0.65	
	의약	32	3.75	0.80	
	예체능	46	4.02	0.68	
소재지	서울	54	4.07	0.67	.836
	경기인천강원	81	3.88	0.83	
	경상권	140	3.91	0.64	
	호남권	57	3.88	0.60	
	충청권	94	3.96	0.72	
	합계	426	3.93	0.69	

개인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직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6〉, 〈표 7〉 참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학점은 여성(83.44점)이 남성(78.95점)보다 높은 반면($t=-4.767, p<0.001$), 구직활동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X^2=3.952, p<0.05$), 구직활동의 적극성 역시 남성은 평균 2.74개, 여성은 2.00개로 남성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t=2.549, p<0.05$). 성별에 따라 재학 중 현장실습 여부의 차이는 없었다.

코호트별 차이분석결과, 중3코호트 대졸자의 학점이 가장 높았으며(82.69점), 일반계고3(79.94

점), 전문계고3(75.42점) 순으로 나타났다($t=11.889$, $p<0.001$). 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 역시 중3 코호트가 고3 코호트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X^2=6.120$, $p<0.05$). 반면, 구직활동의 적극성은 일반계고3(2.94개), 중학교3(2.16개), 전문계고3(2.04개) 순이었다($t=3.307$, $p<0.05$). 이러한 결과는 중3코호트는 여성의 비중이, 고3 코호트는 남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성별 차이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공별 취업준비행동에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지도교수와의 진로관련 면담횟수는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 의약계열 전공자들이 높았으며($F=2.246$, $p<0.05$), 학점은 의약, 교육, 인문계열 학생들이 높은 편이었다. 구직활동의 적극성에 있어서는 공학, 사회계열 학생이 높았고($F=3.646$, $p<0.01$), 예체능과 교육계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132$, $p<0.01$). 또한, 현장실습 경험 비중은 교육, 의약, 자연, 공학계열 순으로 높았다($X^2=41.198$, $p<0.001$). 이러한 특징은 해당 전공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교생실습이나 병원 및 연구실 실습과 같은 필수적인 실습수업이 포함된 교과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개인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직업준비행동 차이 분석1

	지도교수와의 면담 횟수-학업/진로			학점			구직활동의 적극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183	2.96	2.50	205	78.95	9.47	227	2.74	3.19
	여자	162	2.91	2.97	176	83.44	8.83	199	2.00	2.70
	t/F		.163			-4.767***			2.549*	
코호트	중학교 3학년 코호트	204	2.73	2.14	216	82.69	9.37	248	2.16	2.81
	전문계고 3학년 코호트	38	3.21	2.12	40	75.42	10.23	45	2.04	2.88
	일반계고 3학년 코호트	103	3.26	3.76	125	79.94	8.46	133	2.94	3.30
t/F		1.539			11.889***			3.307*		
중고등 코호트	중학교 3학년 코호트	204	2.73	2.14	216	82.69	9.37	248	2.16	2.81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141	3.25	3.39	165	78.84	9.10	178	2.71	3.21
	t/F		.785			-.257			.466	
전공	인문	21	2.48	2.23	21	83.12	7.44	25	1.92	2.47
	사회	87	2.28	1.68	106	81.50	8.83	114	2.58	3.05
	교육	26	2.50	2.25	30	84.93	6.78	33	1.21	1.87
	공학	109	3.28	2.71	123	78.57	9.52	135	3.08	3.39
	자연	35	2.91	2.13	38	79.59	12.05	41	2.07	2.79
	의약	29	3.10	2.18	30	84.89	9.22	32	2.09	2.72
	예체능	38	3.92	4.98	33	81.93	8.77	46	1.50	2.35
	t/F		2.246*			3.646**			3.132**	
	서울	42	2.62	2.29	48	82.15	8.68	54	2.26	3.23
소재지	경기인천강원	71	3.03	2.68	67	83.17	9.81	81	2.72	3.26
	경상권	109	2.90	3.26	132	79.74	9.75	140	2.16	2.70
	호남권	48	3.23	2.22	55	80.16	9.31	57	1.98	2.65
충청권	75	2.91	2.47	79	81.26	8.92	94	2.78	3.20	
합계	345	2.94	2.73	381	81.02	9.44	426	2.39	2.99	
t/F		.305			1.787			1.124		

주 : #(<0.10, *(<0.05, **(<0.01, ***(<0.001

〈표 7〉 개인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직업준비행동 차이 분석2

			구직활동 경험 여부				재학중 현장실습여부			
			아니오	예	전체	X ²	아니오	예	전체	X ²
성별	남자	빈도	107	120	227	3.952*	124	103	227	.483
		%	47.1	52.9	100.0		54.6	45.4	100.0	
	여자	빈도	113	86	199		102	97	199	
		%	56.8	43.2	100.0		51.3	48.7	100.0	
	전체	빈도	220	206	426		226	200	426	
		%	51.6	48.4	100.0		53.1	46.9	100.0	
중고 여부	중등학교 3학년	빈도	136	112	248	2.427	119	129	248	6.120*
		%	54.8	45.2	100.0		48.0	52.0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84	94	178		107	71	178	
		%	47.2	52.8	100.0		60.1	39.9	100.0	
	전체	빈도	220	206	426		226	200	426	
		%	51.6	48.4	100.0		53.1	46.9	100.0	
대학 유형	전문대	빈도	50	56	106	1.131	48	58	106	3.419
		%	47.2	52.8	100.0		45.3	54.7	100.0	
	4년제	빈도	170	150	320		178	142	320	
		%	53.1	46.9	100.0		55.6	44.4	100.0	
	전체	빈도	220	206	426		226	200	426	
		%	51.6	48.4	100.0		53.1	46.9	100.0	
전공 계열	인문	빈도	13	12	25	9.204	18	7	25	41.198***
		%	52.0	48.0	100.0		72.0	28.0	100.0	
	사회	빈도	58	56	114		77	37	114	
		%	50.9	49.1	100.0		67.5	32.5	100.0	
	교육	빈도	21	12	33		5	28	33	
		%	63.6	36.4	100.0		15.2	84.8	100.0	
	공학	빈도	58	77	135		70	65	135	
		%	43.0	57.0	100.0		51.9	48.1	100.0	
	자연	빈도	24	17	41		20	21	41	
		%	58.5	41.5	100.0		48.8	51.2	100.0	
	의약	빈도	17	15	32		9	23	32	
		%	53.1	46.9	100.0		28.1	71.9	100.0	
	예체능	빈도	29	17	46		27	19	46	
		%	63.0	37.0	100.0		58.7	41.3	100.0	
전체	빈도	220	206	426	226	200	426			
	%	51.6	48.4	100.0	53.1	46.9	100.0			
대학 소재 지	서울	빈도	30	24	54	1.927	33	21	54	2.416
		%	55.6	44.4	100.0		61.1	38.9	100.0	
	경기인천 강원	빈도	40	41	81		39	42	81	
		%	49.4	50.6	100.0		48.1	51.9	100.0	
	경상권	빈도	72	68	140		76	64	140	
		%	51.4	48.6	100.0		54.3	45.7	100.0	
	호남권	빈도	33	24	57		29	28	57	
		%	57.9	42.1	100.0		50.9	49.1	100.0	
	충청권	빈도	45	49	94		49	45	94	
		%	47.9	52.1	100.0		52.1	47.9	100.0	
	전체	빈도	220	206	426		226	200	426	
		%	51.6	48.4	100.0		53.1	46.9	100.0	

주 : #<0.10, *<0.05, **<0.01, ***<0.001

2.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기간 분석(Kaplan–Meir analysis)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기간 및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케플란-마이어의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졸업자 가운데 현재 구직활동이 어려운 대학원 진학자와 비 구직 활동자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은 426명이었다. 이들 중 마지막 조사 시점까지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41명(9.6%)인데 이들의 미취업기간은 34개월로 우측절단(right-censored)된 자료의 특성을 갖는다.

미취업 탈출기간의 분포는 KM생존분석(Kaplan–Meir analysis)에 의거하였다(<표 8> 참고). 졸업이전이나 졸업시점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0개월인 졸업생은 전체의 34.7%인 148명이었다. 미취업 탈출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자의 과반수인 50%가 취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개월이며, 70%는 졸업 후 8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졸업 후, 1년이 지나면 전체의 75%가 취업에 성공하고 있으며, 1년이 넘어가면 취업으로의 탈출비율이 점점 낮아져 34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10%에 가까운 대졸자는 미취업자로 남아있었다.

<표 8> 미취업 탈출 기간별 생존비율

시간 (기간/월)	사건 수 (Event)	시간에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사건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값	표준오차		
0	148	.653	.023	148	278
1	41	.556	.024	189	237
2	30	.486	.024	219	207
3	17	.446	.024	236	190
4	18	.404	.024	254	172
5	13	.373	.023	267	159
6	11	.347	.023	278	148
7	14	.315	.022	292	134
8	9	.293	.022	301	125
9	3	.286	.022	304	122
10	4	.277	.022	308	118
11	5	.265	.021	313	107
12	2	.260	.021	315	105
13	11	.232	.021	326	94
14	3	.225	.020	329	91
15	5	.213	.020	334	86
16	3	.205	.020	337	83
17	2	.200	.020	339	81
18	3	.193	.019	342	78
19	4	.183	.019	346	74
20	2	.178	.019	348	72
21	1	.176	.019	349	71
22	6	.161	.018	355	65
23	1	.158	.018	35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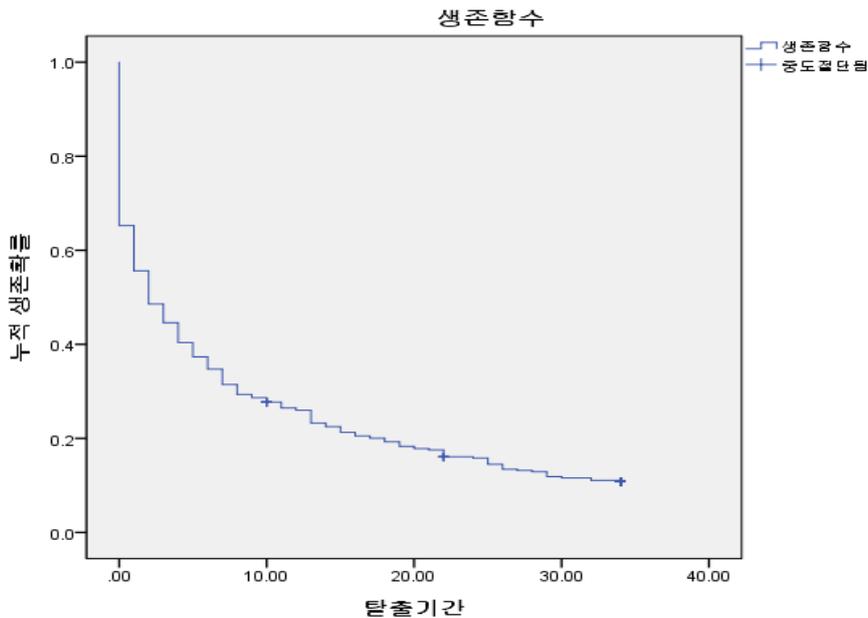
<표 계속>

시간 (기간/월)	사건 수 (Event)	시간에 누적 생존 비율		누적 사건 수	남아 있는 케이스 수
		추정값	표준오차		
25	5	.145	.017	361	55
26	4	.134	.017	365	51
27	1	.132	.017	366	50
28	1	.129	.017	367	49
29	4	.119	.016	371	45
30	1	.116	.016	372	44
32	2	.111	.016	374	42
34	1	.108	.016	37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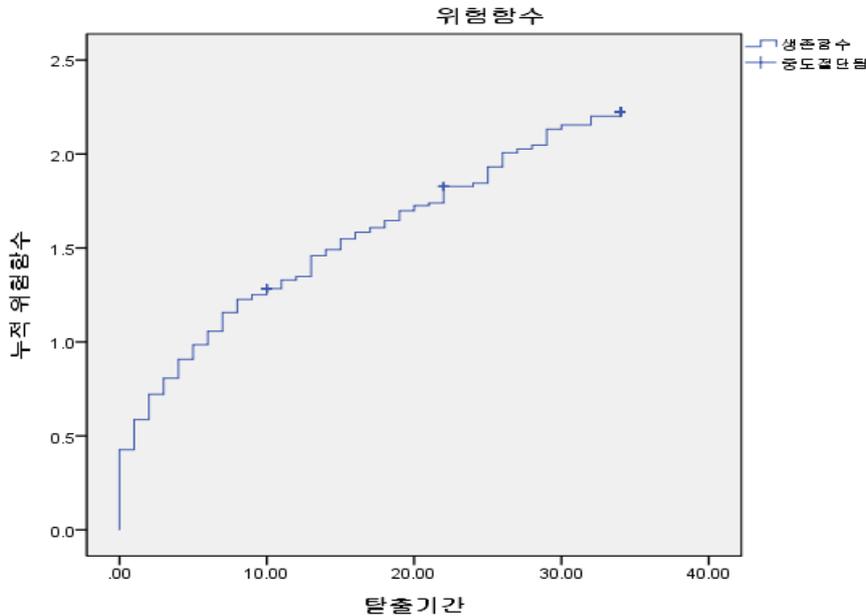
대졸자가 미취업을 탈출하여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평균 소요시간을 추정하면 약 8.3개월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졸업생 전체의 상위 50%가 취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중위수) 약 2개월이었다(<표 9> 참고). 아래 [그림 1]에 따르면, 졸업 후 시점에서 미취업 탈출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만해지는 특성을 보였다. 즉, 졸업 후 미취업이 장기화될수록 미취업을 탈출 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특히, 13개월에서 완만해진 생존비율이 일부 높아졌다가 다시 완만해지는데, 이는 졸업 1년 후, 다시 취업시점이 돌아왔을 때 취업에 성공하는 대졸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 소요기간 평균 및 중위수 추정(KM분석)

추정값	평균		중위수		
	95%신뢰구간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8.358	7.253	9.463	2.000	1.140	2.860



[그림 1]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기간 생존함수



[그림 2]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기간 위험함수

다음으로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요인을 개인 및 학교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표 10>참고). 먼저, 성별에 따르면, 남성의 미취업 탈출기간은 평균 6.7개월인 반면, 여성은 10.2개월로 남성보다 여성의 미취업 탈출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탈출기간은 극단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누적생존확률(미취업으로 남아있는 누적비율)이 0.5인 중위수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출기간의 중위수 역시, 남성이 2개월, 여성이 4개월로 여성이 두 배 가까이 길었다.

코호트별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코호트의 경우, 평균 9개월(중위수 3개월), 전문계고 3학년은 8.6개월(중위수 2개월), 일반계고3 코호트의 경우 6.9개월(중위수 2개월)의 미취업 탈출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일반계고>전문계고> 중학교 코호트 순으로 탈출기간이 짧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코호트별 차이이기 보다는 코호트별 성별분포의 차이가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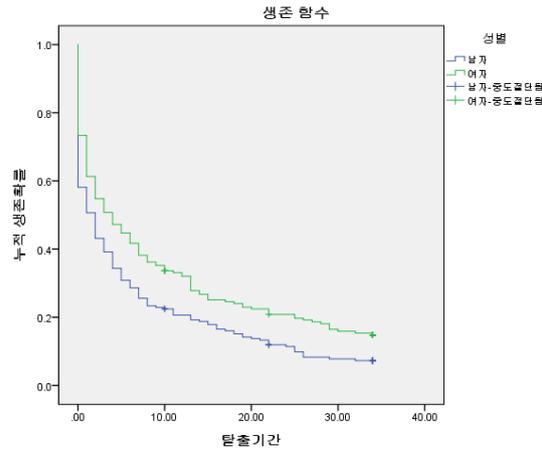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전문대 졸업생이 6.8개월(중위수 1개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8.8개월(중위수 3개월)로 4년제 대졸자에 비해 전문대 졸업생의 미취업 탈출기간이 짧았으며, 전공별로는 공학>의약>자연>교육>사회>인문>예체능 순으로 미취업을 탈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Log Rank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공학과 인문($X^2=6.845$, $p<0.05$), 공학과 사회($X^2=7.302$, $p<0.05$), 공학과 예술($X^2=8.699$, $p<0.05$) 및 인문계열과 의약계열의 미취업 탈출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X^2=4.075$, $p<0.01$).

마지막으로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는 미취업 탈출기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평균=10.9개월, 중위수 4개월)과 호남지역(평균 10.3개월, 중위수 4개월) 대졸자의 미취업자의 탈출기간은 경기 인천강원지역(평균 6.3개월, 중위수 2개월) 대졸자에 비해 미취업기간이 긴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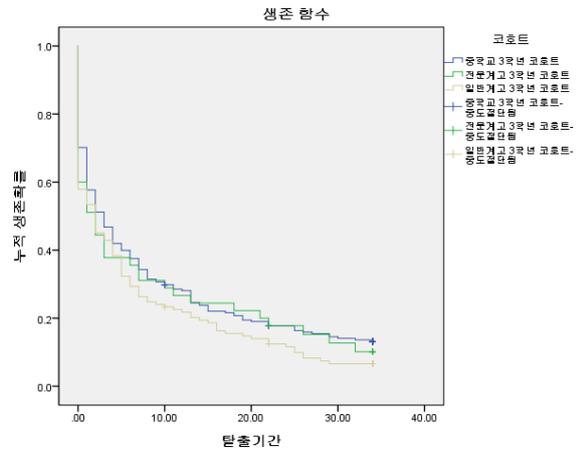
〈표 10〉 개인 및 학교특성에 따른 미취업 탈출기간 평균 및 중위수 추정(KM 분석)

구분		평균			중위수			Log Rank (Mantel-Cox) X ²
		추정 값	95% 신뢰구간		추정 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성별	남자	6.733	5.378	8.087	2.000	1.140	2.860	10.243 **
	여자	10.207	8.451	11.963	4.000	2.327	5.673	
	전체	8.358	7.253	9.463	2.000	1.140	2.860	
코호트	중학교 3학년	9.069	7.558	10.580	3.000	1.815	4.185	-
	전문계고 3학년	8.641	5.088	12.194	2.000	.133	3.867	
	일반계고 3학년	6.940	5.189	8.692	2.000	.313	3.687	
	전체	8.358	7.253	9.463	2.000	1.140	2.860	
학교 유형	전문대	6.829	4.800	8.859	1.000	0.000	2.259	3.967*
	4년제	8.866	7.563	10.169	3.000	1.949	4.051	
	전체	8.358	7.253	9.463	2.000	1.140	2.860	
전공	인문	12.480	7.622	17.338	7.000	2.104	11.896	인문/공학 : 6.845** 인문/의약 : 4.075* 사회/공학 : 7.302** 예술/공학 : 8.699**
	사회	9.932	7.684	12.180	4.000	1.909	6.091	
	교육	7.091	3.841	10.341	1.000	0.000	2.535	
	공학	6.029	4.290	7.767	1.000			
	자연	6.805	3.476	10.134	2.000	0.000	4.689	
	의약	6.594	2.931	10.256	2.000	.625	3.375	
	예체능	12.674	8.704	16.644	6.000	.461	11.539	
	전체	8.358	7.253	9.463	2.000	1.140	2.860	
학교 소재지	서울	10.945	7.204	14.687	4.000	1.942	6.058	서울/경기인천강원: 4.853* 호남/경기인천강원 : 4.958*
	경기인천강원	6.346	4.231	8.460	2.000	1.143	2.857	
	경상권	7.790	5.936	9.645	2.000	.949	3.051	
	호남권	10.343	7.073	13.613	4.000	1.543	6.457	
	충청권	8.272	5.979	10.565	3.000	1.104	4.896	
	전체	8.358	7.253	9.463	2.000	1.140	2.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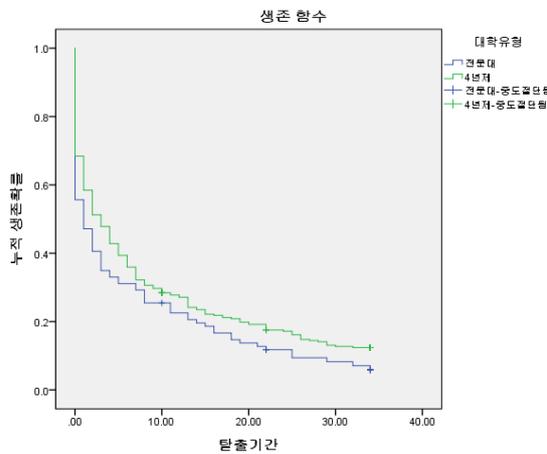
주 : #<0.10, *<0.05, **<0.01,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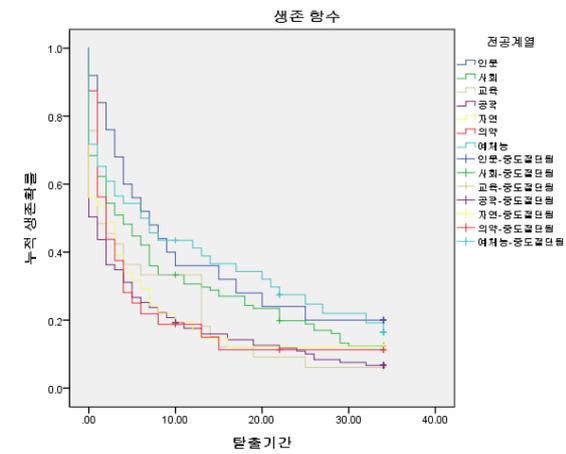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생존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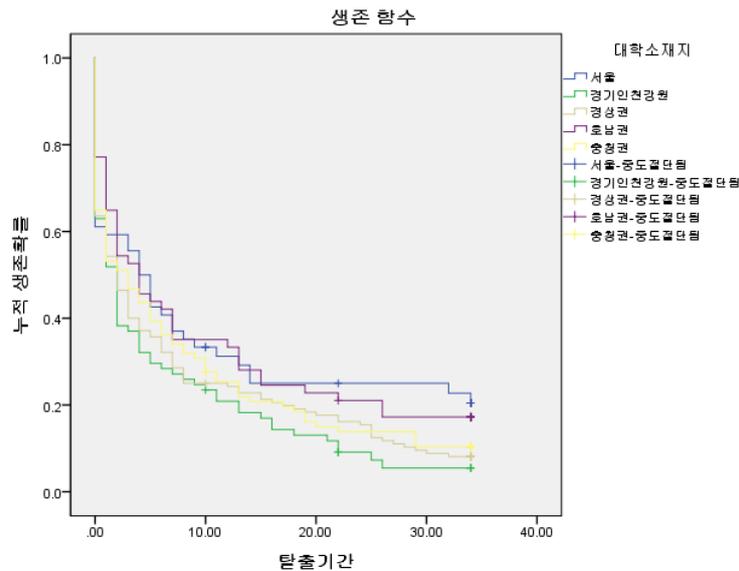
〈코호트에 따른 생존함수〉



〈대학유형에 따른 생존함수〉



〈전공계열에 따른 생존함수〉



〈대학소재지에 따른 생존함수〉

[그림 3] 개인 및 학교특성에 따른 생존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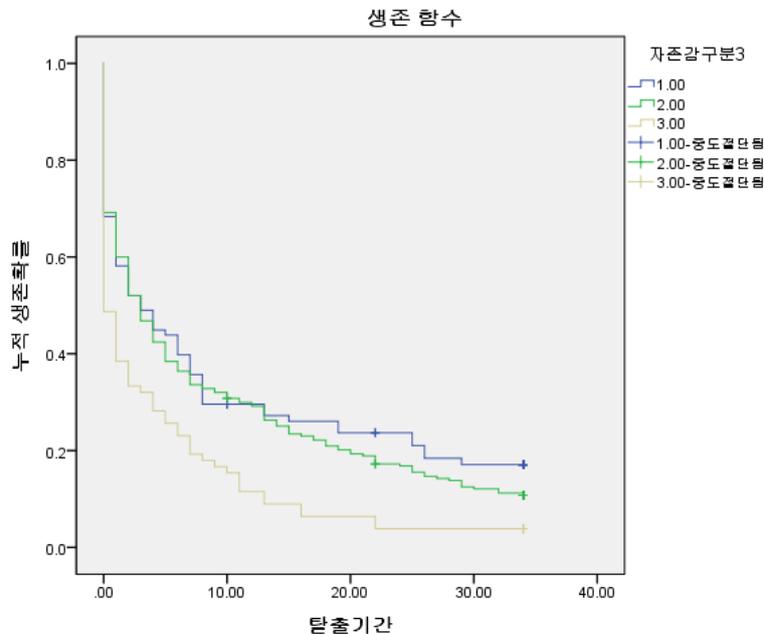
다음은 대졸자의 자기관리역량이 미취업 탈출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자기 관리역량은 여러 변수 중 자존감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자존감이 자신의 미래와 직업, 경력에 대한 준비와 마음가짐, 행동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 변수는 8차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졸업학년의 자존감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존감은 5점 척도로 구성되는데, 집단별 미취업 탈출기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3점 이하, 4점, 5점에 응답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존감이 3점 이하인 집단은 미취업 탈출기간이 평균 10개월(중위수 3개월)인데 반해, 4점 집단은 9개월(중위수 3개월), 5점 집단은 4.3개월(중위수 0개월)로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미취업 탈출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5점인 집단은 3점 혹은 4점 집단에 비해 미취업 탈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X^2=11.873$, $p<0.01$, $X^2=12.681$, $p<0.001$).

〈표 11〉 자존감에 따른 미취업 탈출기간 평균 및 중위수 추정(KM 분석)

구분	추정값	평균		중위수			Log Rank (Mantel-Cox) X^2	
		95% 신뢰구간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자존감 ⁵⁾	3점 이하	10.022	7.444	12.600	3.000	.762	5.238	자존감1/3 : 11.873** 자존감2/3 : 12.681***
	4점	9.013	7.547	10.479	3.000	1.946	4.054	
	5점	4.333	2.596	6.071	0.000	-	-	
	전체	8.358	7.253	9.463	2.000	1.140	2.860	

주 : #<0.10, *<0.05, **<0.01, ***<0.001



〔그림 4〕 자존감에 따른 생존함수

5)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케플란-마이어 분석에서는 3점이하, 4점, 5점 등 3등급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함

다음으로 취업준비행동에 따른 미취업 탈출기간의 평균 및 중위수를 추정한 결과이다(<표 12>참고). 먼저, 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평균 7.2개월, 중위수 2개월), 경험이 없는 대졸자(평균 9.3개월, 중위수 3개월)에 비해 취업으로의 성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4.308,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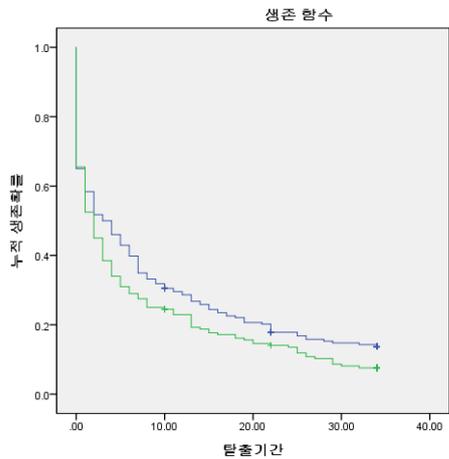
학점은 평점을 만점으로 나누어 100점으로 환산한 값이다. 환산점수를 7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80점 이상~90점 미만, 90점 이상으로 4등분하여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점평균이 90점 이상인 집단은 약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반면, 70점 미만은 7.2개월, 70점~80점 미만은 6.5개월로 오히려 학점이 높은 집단에서 미취업 탈출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학점은 스펙쌓기의 한 요소로서 학점이 높은 경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위해 오랜기간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취업준비 여부는 미취업 탈출기간에 큰 차이를 유발하였다. 취업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 미취업탈출 기간은 4.7개월(중위수 1개월)로 취업준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미취업 탈출기간 평균 11.6개월, 중위수 5개월)보다 취업기간을 평균 7개월이나 앞당기고 있었다($X^2=42.664,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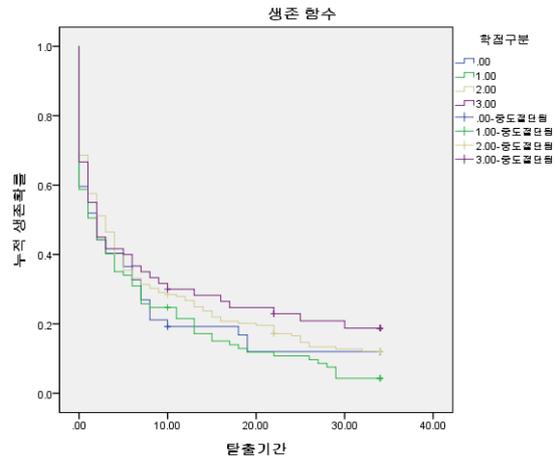
〈표 12〉 취업준비행태에 따른 미취업 탈출기간 평균 및 중위수 추정(KM 분석)

구분		평균			중위수			Log Rank (Mantel-Cox) X^2
		추정값	95% 신뢰구간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재학중 현장실습 여부	아니오	9.396	7.796	10.997	3.000	1.316	4.684	4.308*
	예	7.196	5.703	8.689	2.000	1.327	2.673	
	전체	8.358	7.253	9.463	2.000	1.140	2.860	
학점	70점 미만	7.260	4.214	10.305	2.000	.245	3.755	학점70~80/ 학점90이상: 4.082*
	70~80미만	6.541	4.590	8.493	2.000	.630	3.370	
	80~90미만	8.663	6.900	10.427	3.000	1.718	4.282	
	90이상	9.996	6.614	13.377	2.000	.741	3.259	
	전체	8.123	6.963	9.283	2.000	1.292	2.708	
취업준비 여부	아니오	11.689	9.938	13.440	5.000	2.995	7.005	42.664***
	예	4.768	3.654	5.882	1.000	.363	1.637	
	전체	8.358	7.253	9.463	2.000	1.140	2.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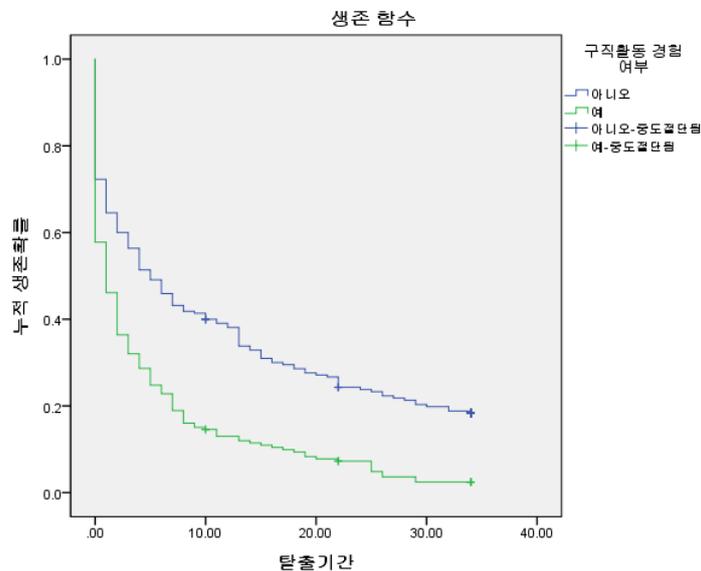
주 : #<0.10, *<0.05, **<0.01, ***<0.001



〈현장실습여부에 따른 생존함수〉



〈학점에 따른 생존함수〉



〈구직활동 경험에 따른 생존함수〉

[그림 5] 취업준비행동에 따른 생존함수

3.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 결정요인(콕스의 비례위험모형)

마지막으로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콕스의 비례위험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은 우측절단(right censored)된 케이스를 고려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시간에 따라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탈출 확률에 대한 특별한 분포의 가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천영민, 2012).

본 연구의 분석은 총 4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모델 1은 성별, 코호트, 대학유형, 전공유형, 대학소재지 등 개인 및 학교변수만 투입하였으며,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자존감을 추가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모델 3에서는 대학생활 중 취업준비행동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델 1에 취업준비 행동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모델 4에서는 개인 및 학교변수, 자기

관리역량, 취업준비행동 등 전체 변수를 모두 투입하였다. 종속변수는 미취업 탈출 기간과 탈출 확률을 의미하며, 시점 t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방향성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즉, 독립변수 계수의 부호가 양(+)이면 미취업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호가 음(-)이면 미취업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우선 모델 1 분석결과, 전공계열이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체능계열(더미) 졸업생에 비해 교육계열 졸업생의 미취업 탈출 확률이 1.73배 높았으며, 공학계열은 1.64배, 자연계열은 1.6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코호트, 대학유형 및 대학 소재지는 미취업탈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모델2는 모델 1에 자존감을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공계열은 예체능 계열에 비해 교육계열과 공학계열의 탈출비율은 여전히 높았으며,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1.2배 높았다.

반면, 모델 1에 취업준비행동을 투입한 결과(모델 3), 구직준비행동과 구직행동의 적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직활동을 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미취업 탈출 가능성이 2.6배나 높은 반면, 취업준비 적극성은 오히려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행동 적극성은 미취업 탈출 가능성을 0.904배로 낮추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취업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여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구직활동 내용을 많지만, 결정적으로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 오히려 취업준비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에 개인, 학교, 자기관리역량, 취업준비행동 등 전체 변수를 모두 투입한 결과(모델 4), 청년층의 자존감은 미취업 탈출을 앞당기는 요인이었으며(1.336배), 구직활동 자체 역시 미취업탈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었다(2.882배). 다만, 학점(0.986배)과 구직활동의 적극성(0.895배)은 미취업 탈출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학점은 스펙중의 하나로 학점이 높다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해 대학시절 성실히 학점을 관리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학점이 높은 학생은 그만큼 취업직장에 대한 기대가 높고, 본인의 기대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고, 그 결과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예측이 가능하다.

<표 13> 대졸자의 미취업탈출의 영향요인 분석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성별(남=1)	-.157	.854	-.162	.851	-.188	.829	-.186	.831
코호트(더미=일반고3)								
중학교3 코호트	-.065	.937	-.043	.958	.089	1.093	.151	1.163
전문계고3 코호트	-.151	.860	-.135	.874	-.139	.870	-.075	.928
대학유형(4년제=1)	-.191	.826	-.182	.834	.036	1.036	.048	1.049

<표 계속>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전공계열(더미=예체능)								
인문	.022	1.022	.087	1.090	-.355	.701	-.191	.826
사회	.265	1.304	.268	1.308	-.069	.933	-.032	.968
교육	.551*	1.735	.588*	1.800	.398	1.489	.515	1.673
공학	.496*	1.643	.495*	1.640	.195	1.215	.242	1.274
자연	.471*	1.601	.450	1.569	.170	1.185	.201	1.223
의약	.436	1.547	.469	1.598	.261	1.298	.368	1.445
대학소재지(더미=충청권)								
서울	-.244	.784	-.240	.787	-.194	.824	-.174	.840
경기, 인천, 강원	.048	1.049	.079	1.082	.084	1.088	.118	1.126
경상권	-.020	.980	-.003	.997	-.110	.896	-.082	.921
호남권	-.258	.772	-.227	.797	-.251	.778	-.226	.798
자존감			.188*	1.207			.290**	1.336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진로)					-.019	.981	-.022	.978
재학 중 현장실습여부					.135	1.145	.100	1.105
학점					-.012	.988	-.014#	.986
구직활동 여부					.961***	2.614	1.059***	2.882
구직활동의 적극성					-.101**	.904	-.111**	.895
-2log L	4047.844		4042.559		2740.309		2732.077	
표본수	426		426		426		426	

주 : #<0.10, *<0.05, **<0.01, ***<0.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고용과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졸자가 미취업을 탈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미취업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청년 노동시장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2년 대졸자를 중심으로 청년 노동시장 입직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자는 개인 및 학교특성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학점에 신경 쓰고 있는 반면, 직업훈련, 취업부탁, 취업박람회 참여, 자격증 취득, 이력서 업로드 등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은 남성이 보다 더 적극적인 특성을 보였다. 또한, 요즘 강조되고 있는 현장실습은 전문대와 특정 전공계열에서 활발히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과 학교특

성에 따라 현장실습 경험에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4년제 대학 인문, 사회 계열은 현장실습 경험이 매우 낮아 이들의 직업생활과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공학, 자연, 교육, 의예과 전공생에 비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졸자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취업 탈출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병희 외(2002)가 밝힌 대졸 초기에는 실업 탈출확률이 높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자리 탐색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보충에도 불구하고 탈출확률이 감소하며, 전환점(turning point)을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학교 졸업 후에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노동시장 이행의 수월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구직기간의 증가는 노동시장 이행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김주섭, 박성재, 2003).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활동에 자신감이 줄어들고 낙인효과로 인해 취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박천수, 2009).

셋째, 청년층의 자기관리역량인 자존감은 미취업 탈출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존감은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과 무엇이든 잘 해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기 신뢰이다. 대학시절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미취업 탈출기간이 현저히 짧았으며, 실질적인 미취업 탈출 확률도 높고 있었다. 이는 삶의 만족과 행복이 개인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주관적인 인식과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확인한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김계하, 2005; 최인, 황혜민, 2015).

넷째,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구직활동은 미취업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전략 없는 무조건적인 취업준비행동은 오히려 미취업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연구에서 활용한 취업준비 행동 변수가 대학생 시절의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취업 전 이것저것 취업준비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취업기간이 빨라지는 것만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년층이 대학시절 다양한 직장 경험 및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대학과정의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다 실용적인 학습을 지향하는 전문대와 현장학습을 강조하는 교육, 공학, 자연, 의약 계열에서의 미취업 탈출기간의 단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 교육과 현장교육의 괴리는 오랜기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제는 보다 다양한 현장실습과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교육과정과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미취업의 장기화는 청년층의 취업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하고, 이러한 미취업의 지속적 경험은 취업 포기자를 양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취업지원 기간은 취업준비생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높이 조절, 경력개발에 대한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미취업 탈출 가능기간 내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 스스로도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전략적 탐색을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취업 탈출기간과 탈출 가능성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심리적 인식에 의해 상당히 좌우되고 있었다. 요즘 청년고용의 악화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청년층에서는 직장, 꿈, 희망마저 포기해 버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셀프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스템과 사회제도적 장치를 통해 청년들이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상담,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몇 년째 지속되는 청년층의 고실업 문제는 대학생들 고 스펙 쌓기에 매몰시키고 있다. 취업을 위한 스펙 7종 세트, 8종 세트 등 무조건적인 스펙쌓기는 청년층의 취업사교육 비용 증대, 대학생의 휴학증가, 졸업 유예생 확대, 첫 직장으로의 이행기간 연장 등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이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스펙쌓기와 취업준비의 양적 증가는 미취업기간을 줄이는데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NCS중심의 채용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NCS제도는 아직 도입단계에 있지만, 청년층의 오버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것이 아닌 희망 취업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스펙 쌓기와 직무능력 향상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취업준비행동의 양적 증대가 미취업 탈출에 주는 결과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제는 무분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희망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필요한 취업준비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계하(2005). 후천성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 호과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두순 · 이주현 · 이성재 · 김지은(2011), 200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김미란 · 신동균(2009), 「전공계열별 교육투자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2(3), pp.97~120.
- 김미란(2005), 「청년층 첫 직장 이행기간에 대한 학력과 전공선택의 영향」, 직업과 인력개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pp. 23~52.
- 김주섭 · 박성재(2003)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분석,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pp.17~44.
- 남재량, 김세용(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 직업능력개발연구, 6(1), 1~25.
- 박성재 ·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박천수(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pp.117~139.
- 변금선(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8(1), pp.129~161.
- 성지미 · 안주엽 (2012), 「청년층 취업교육투자와 노동시장 성과」,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안주엽 · 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 25(1), pp.47~74.
- 우해봉, 윤인진 (2008), 경쟁리스크 생존모형을 통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pp. 225~250.
- 이병희 (2002)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pp.31~50.
- 이병희 · 김주섭 · 안주엽 · 정진호 · 남기곤 · 류장수 · 장수면 · 최강식(2005),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전재식 · 박태준 · 김미란 · 민주홍 · 김민경 · 신동균 · 장원섭 · 박재민 · 김진영 (2010), 교육과 노동 시장연계와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구목(2013).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양서원.
- 천영민(2012), 대졸자의 첫 일자리의 이행실태 및 영향요인, 고용과 직업연구, 6(2) pp.1~26.
- 최문경 · 이기엽 (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직업능력개발연구, 의료커뮤니케이션, 11(3), pp.23~48.
- 최인, 황혜민(2015), 연령차별과 절망감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10(1), pp.17~25.
- Cox D. R. (1975). Partial Likelihood, Biometrika, 62, pp.269~276.

❖ Abstract ❖

A Study on the Youth Unemployment and Duration to First Job of Korean Young Graduates

Lim Jung-Yeon, Lee Young-Min

This study analyzes how long take a time for school to work transition and find factors that effect to escape Youth unemployment.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using Kaplan-Meir 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graduates were difference job preparation actions by sex and major. second, the longer the period of un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s, the lower chance to escape unemployment. Third, self-esteem was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o get a job. finally, Seeking a job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however, the number of job preparation action was a negative effect on escaping the unemployed.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practical intervention strategies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Key words: Youth labor market, Unemployment period, Survival Analysis,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